



더 깊은 묵상

희망을 제련하는 하나님의 용광로

어느 날 오후 폐암 말기 환자와 그의 가족이 찾아왔습니다.
환자인 그 부인은 내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.
불교 집안으로 시집가서 평생 남편의 구원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던
그 여인이 폐암에 걸렸다는 겁니다.
설상가상으로 수술도 실패해서 암세포가 다른 곳까지
전이된 상태였고, 더 이상의 치료방법도 없었습니다.
함께 온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아내가 그토록
“교회 좀 나가자. 예수님을 좀 믿어보자”고 했는데도
그렇게 하지 못했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. 저는 병세에 대한
이야기를 다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.
“포기하십시오. 죽음을 준비하십시오. 그리고 이제 죽음과 더불어
자유함을 느끼십시오.”모두가 당황하는 눈치였습니다.
그러나 부인만은 “맞습니다. 받아들여겠습니다.”라며 담담하게
말했습니다. 자신이 구원받았고 천국에 갈 것을 생각하니
용기가 생긴다고 덧붙였습니다.
“포기는 기적의 시작입니다. 당신이 정말 포기하면 다시 살려
주실 지도 모릅니다. 하지만 꼭 살려주실 거라고 생각하지는
마십시오.” 저는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희망이 솟아오르는
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.
“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.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
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”(막7:7).
이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. 희망과 기대에 부풀어서 걸어갔던
인생길, 그러나 그 길 끝에 있는 문이 닫혀 있을 때
옆을 바라보십시오. 한쪽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려있는
법입니다. ‘나’에 대해서 절망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
희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.
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.

출처 -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/ 하용조